

ESG 녹색채권(사모/공모)

사후 보고서

‘2022.10

한양은 1973년 창립 이래,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 지속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탄소배출 절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인증 등 친환경 경영을 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력사업을 ‘스마트도시&주택개발사업’과 LNG, 신발전, 신재생 등 ‘에너지사업’으로 재편성하고, 태양광, 친환경 바이오매스 등 발전소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자족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전남 여수 묘도동에 추진 중인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이하NEA)’ 개발사업은 65만㎡ 규모의 묘도 부지 내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12기와 그 부속설비(기화송출설비, 접안부두, 배관 등)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NG 저장탱크 2기에 대한 공사계획을 먼저 승인 받아 현재 기초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보성그룹에서는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블루수소 사업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묘도에 종합적인 LNG Value Chain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 98MW급 발전설비와 세계 최대 용량인 306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73MW급 수상 태양광사업인 ‘새만금 햇빛 나눔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간 22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인 ‘광양바이오매스발전’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바이오매스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양의 합작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ICAM GBP의 프로젝트 분류기준 상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사업입니다.

한양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육상 및 수상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개발 및 EPC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I. 주요경영활동

■ 품질경영

한양은 고객 및 법적요구사항에 적합하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 시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ISO9001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일련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유지하며 전 임직원은 품질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유지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환경경영

한양은 2014년 4월 국제환경경영 표준규격인 ISO4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한양은 친환경 설계를 비롯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주택건설, 풍력발전, LNG가스사업 등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

한양은 창의적 사고 및 끝없는 도전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설계, 시공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여 전 직원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CSO를 신규선임하고 '안전관리팀'을 '안전경영실'로 확대하고 최신 안전기술을 현장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시기별, 단계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① 본사 조직체계 강화

- 업무분장에 따른 수직적 부서운영 및 시스템 구축
- 밀착점검으로 안전관리자 자질 향상
- 현장소장의 안전동참 유도

② 건설본부 안전참여 문화 정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역할 강화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 현장직원의 안전분담화
- 건설본부 협업강화

③ 안전관리자의 자질향상

- 안전관리자 능력배양
- 수시 현장교육, 현장여건에 맞는 외부 안전기관 전문교육 실시

④ 본사 안전관리 활동 강화

- CEO, CSO현장 수시 점검 및 교육
- 현장 시스템교육 강화: CSO, 안전경영실 부서원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
- 인재육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 선진화
- 현장과 협력사의 자율 안전보건 활동 보장

※ 안전/보건 목표

-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규정과 절차 준수 문화 조성
-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적용
-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활동 적극 참여

II. 동반성장

한양은 협력사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①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철저
-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용
- 하도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정기 운영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신문고)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② 협력사와의 개방적 파트너십 구축

- 협력사 지원 조직(동반성장팀) 운영
- 협력사 간담회 정기 개최
- 각 현장 상생협의체 정기 운영
- 우수협력업체 포상
- 구매상담회 정기 참여

③ 상생협력 지원

- 하도급대금 결제비율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개선
-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운용
-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 협력사 직무관련교육 실시
- 협력사 경조사지원

III. 사회공헌

한양은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및 전 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이루고자 지난 2004년부터 '산양사랑나눔봉사단'을 창립하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정가지원 활동

-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② 임직원 봉사활동

- 임직원 정기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행사 지원
-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 인천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③ 소외계층 지원

- 저소득층 주거개선 활동
- 장학금 후원활동 등

④ 기타 비정기 후원

- 재난 지원봉사
- 복지단체지원 등

조달자금의 사용처

한양은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도는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채권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환경부가 2020년 12월에 발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가이드라인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관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 ESG 프로젝트 대상

*녹색 프로젝트 범위	해당 프로젝트	환경목표
1.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 태양광·집광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연료 제조	- 바이오 -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 풍력발전 - 연료전지	기후 변화 완화
2.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 - 고효율 가스 연소를 통한 전력생산 - 열병합 발전	- LNG 발전, 복합 화력 발전(LNG)	기후 변화 완화
3. 친환경 건물에 관한 사업	- 아파트, 주상복합,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 완화, 천연자원 보전

■ 자금배분 보고

구분	표준코드(ISIN)	총 발행자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배분금액	미사용 금액 총계	용도
사모	KR6008691B58	200억	200억	(0)억원	출자금 용도
공모	KR6008691B66	600억	600억	(0)억원	출자금 용도

■ 자금사용 용도 및 기대효과

(주)한양이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금액은 총 800 억원 범위이며, 조달금액 전액을 (주)한양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출자사인 광양그린에너지(주)의 출자금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1년 11월 952억 출자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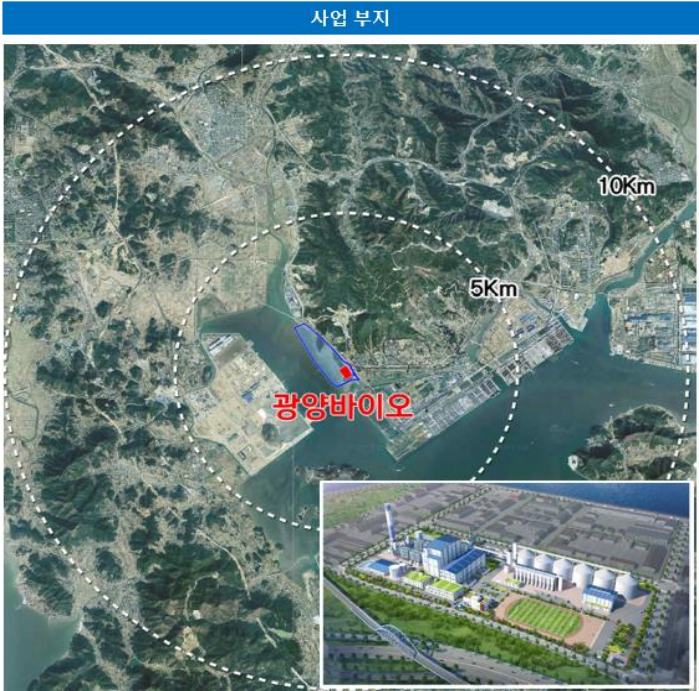
해당 프로젝트인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우드펠릿 연소를 통한 전기의 제조 및 판매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설은 광양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황금산업단지 내 122,300(약 37,000 평) 규모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발전기 설비 형식은 CFBC 보일러(순환유동층보일러) 타입으로 연간 약[78]만톤 수준의 우드펠릿을 연료로 사용하여전력을 생산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며, 전력판매(전력거래소) 및 RPS 제도하에서 발급받는 REC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적용받아 전력 판매량 1MWh 당 1.5 개의 REC를 발급 받게 됨)

(주)한양은 적격프로젝트 선정기준을 ICMA의 녹색채권원칙을 준수하며,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을 ESG 분류체계(KIS Taxonomy)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판단하여,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프로젝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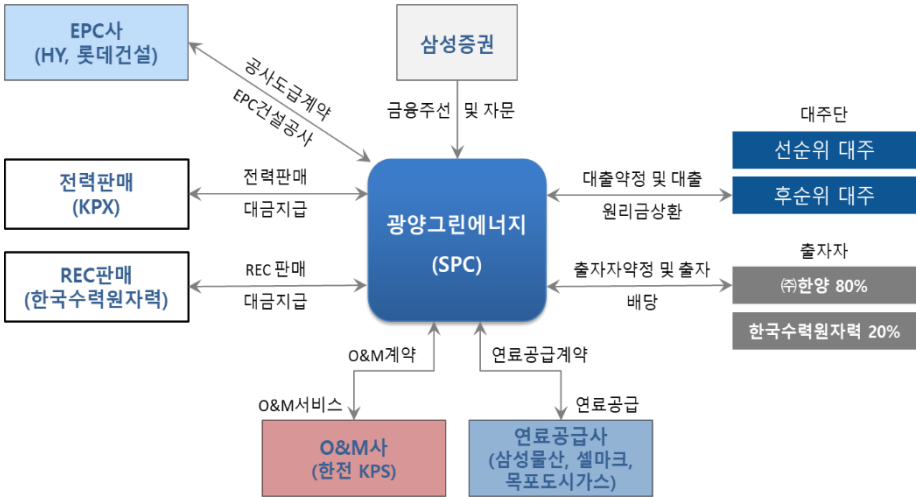
[참고] 사업내용 및 자금사용 구조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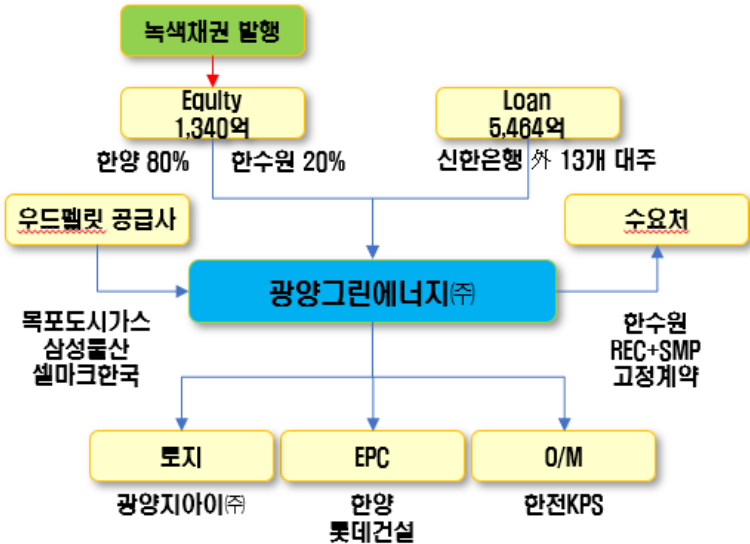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업명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사업법인	광양그린에너지㈜ (GGE)
위치 및 규모	전라남도 광양 황금산업단지 內 (광양시 황금동 산 191번지) 131,590㎡ (39,806평)
주주	㈜한양 80% 한국수력원자력㈜ 20%
사용 연료	순수목질계 바이오매스(전소)
설비 구성	CFBC 보일러 2기 110MW 스팀 터빈 2기 등
총 투자비	총 투자비 : [6,804] 억원
재원조달	자기자본 : [1,340] 억원 (총 투자비의 [19.7%]) 타인자본 : [5,464] 억원 (총 투자비의 [80.3%])
사업기간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
REC구매	한국수력원자력㈜ (AAA, 한기평)
O&M	한전 KPS(주) (AA, 한기평)
연료공급	삼성물산 (AA+, 한기평), 목포도시가스 (A-, 한기평), 셀마크(AAA, D&B)
EPC	롯데건설(A+, 한기평) 및 한양(BBB+, 한기평) 공동 이행



2. 사업구조



3. 자금사용 구조



환경영향 보고 및 관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또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대기중 CO2를 흡수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흡수된 CO2를 다시 대기로 배출하기에 탄소중립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설비 건설 및 전력 생산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 환경영향관리 방안

구분	기준														
	1. 공사시	2. 운영시													
대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및 운영 시 국지적인 기상변화 모니터링- 주기적 살수 실시, 차량운행속도 20km/h 제한- 유지목표농도 설정·유지 : [PM-10(80μg/m³), NO₂(0.048ppm)]	<div>○배출 기준</div> <table><tr><th rowspan="2">항목</th><th rowspan="2">배출 허용기준</th><th>협의결과</th></tr><tr><th>배출(설계)기준</th></tr><tr><td>황산화물 (SO₂, ppm)</td><td>25(6)이하</td><td>3(6)</td></tr><tr><td>질소산화물 (NO₂, ppm)</td><td>15(6)이하</td><td>10(6)</td></tr><tr><td>먼지(Dust, mg/Sm³)</td><td>5(6)이하</td><td>4(6)</td></tr></table>	항목	배출 허용기준	협의결과	배출(설계)기준	황산화물 (SO ₂ , ppm)	25(6)이하	3(6)	질소산화물 (NO ₂ , ppm)	15(6)이하	10(6)	먼지(Dust, mg/Sm ³)	5(6)이하	4(6)
항목	배출 허용기준	협의결과													
		배출(설계)기준													
황산화물 (SO ₂ , ppm)	25(6)이하	3(6)													
질소산화물 (NO ₂ , ppm)	15(6)이하	10(6)													
먼지(Dust, mg/Sm ³)	5(6)이하	4(6)													
수질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BOD, SS 각각 20mg/L 이내로 처리- 토공사는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총 5개소) 및 유지관리- 슬러지 및 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폐수 및 함유폐수 처리시설(88m³/hr 설치- 폐수재이용설비(66m³/hr) 설치-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 설치													
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발생폐유는 폐유보관시설 1개소 설치, 전량수거- 조석 및 심야시간대에 소음·진동 발생이 큰 공종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저장창고를 별도의 건물로 건설- 터빈은 건물내부에 별도 방음판넬 커버 설치- 장비 부산 투입,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정													

1. 공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장비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 장비투입계획

○ 공사시 온실가스는 대부분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며, 토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장비투입에 따른 연료사용량은 총 1,687.2L/일로 산정됨.

〈공사시 투입장비 및 연료사용량 산정〉

장비명	규격	일 최대 투입대수 (대)	연료사용원단위 (L/hr·대)	연료사용량 (L/일)
덤 프 트 렉	15ton	3	15.9	381.6
불 도 저	32ton	2	41.6	665.6
굴 삭 기	2.0m³	2	32.8	524.8
로 울 러	10ton	1	14.4	115.2
합 계	-	8	-	1,687.2

주) 1.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적용, 사용연료는 경유 적용

2. 건설장비 투입대수는 「7.2.2 대기질」에서 산정한 결과를 적용

(나) 온실가스 배출량

- 공사시 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사장비의 연료사용량,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연간 221.40 tCO₂-eq 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됨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분	연료사용량 (L/일)	순발열량 (TJ/일)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
경유	1,687.2	0.060	221.40

① 순발열량(TJ)

▸ $TJ = \text{연료사용량(L/일)} \times \text{순발열량(MJ/L)} \div 106$
 $= 1,687.2 \text{ L/일} \times 35.3 \text{ MJ/L} \div 106$
 $= 0.060 \text{ TJ/일}$

② 온실효과 가스(CO, CH, NO) 배출량 = 순발열량(TJ/일) × 배출계수(kg/TJ)

▸ $CO_2 = 0.060 \text{ TJ/일} \times 74,100 \text{ kg/TJ} = 4,413.26 \text{ kg/일}$
 ▸ $CH_4 = 0.060 \text{ TJ/일} \times 3 \text{ kg/TJ} = 0.18 \text{ kg/일}$
 ▸ $N_2O = 0.060 \text{ TJ/일} \times 0.6 \text{ kg/TJ} = 0.04 \text{ kg/일}$

③ 온실가스 배출량(CO₂e) =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kg/일) × 지구 온난화계수

▸ $CO_2e = (4,413.26 \text{ kg/일} \times 1) + (0.18 \text{ kg/일} \times 21) + (0.04 \text{ kg/일} \times 310)$
 $= 4,428.09 \text{ kgCO}_2\text{eq/일}$
 ▸ 연간 배출량 = $4,428.09 \text{ kgCO}_2\text{eq/일} \times 2\text{개월} \times 25\text{일/월} \div 103$
 $= 221.40 \text{ tCO}_2\text{-eq/년}$

2) 흡수원(산림)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 사업지구는 광양 황금일반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부지조성이 완료된 내대지 지역으로 별도의 산림훼손 및 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감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 공사시 온실가스 변화량

○ 사업지구 특성상 산림훼손에 따른 탄소흡수량 감소 영향이 없으므로 공사장비에 의한 배출량은 총 221.40 tCO₂-eq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 분	장비가동 (공사장비 연료사용)	산림 훼손 (흡수량 감소)	합 계
총 온실가스 발생량 (tCO ₂ -eq)	221.40	-	221.40

2. 운영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산정

□ 전력생산량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 : 683,616.38 tCO₂-eq/년

전력생산 기준	$((\text{발전용량} \times 24\text{시간} \times 365\text{일} \times \text{이용률}) \times \text{단위환산}) \times \text{국가고유전력배출계수}$ $= ((220,000 \times 24 \times 365 \times 0.8) \times 10^{-3}) \times 0.4434$ $= 683,616.38 \text{ tCO}_2\text{-eq/년}$
------------	---

※ 국가고유전력배출계수 변경(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 2020년 기준 → 2021년 기준)

□ 환경 영향보고 (Impact Reporting)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개요	분야 및 환경 목표	총 사업비	자금조달비율
바이오매스 발전소	220MW(110MW*2기)	재생온실가스 감축	6,804억원	80.3%

녹색채권 배분금액	프로젝트 시작	신규프로젝트 자금사용비율	지출의 특성	환경개선표지 (연간)
800억원	2021년 7월	100%	유형자산 (100% 자본지출)	683,616.38 (tCO ₂ -eq/년)

※ 보고서 공개일 현재 녹색채권 발행자금 전액 배분이 완료됨에 따라 본 보고서가 최종 게시임.

ESG 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

(주)한양 녹색채권(Green Bond)

평가일 2022.10.19

평가담당자

 조병준 실장
 ☎ 787-2227
 bjcho
 @klsrating.com

 최태양 연구원
 ☎ 787-2325
 Taeyang.Choi
 @klsrating.com

발행 개요

발행인	(주)한양
평가대상	제 68 회 사모사채 제 69 회 공모사채
평가종류	사후평가(정기평가)
발행금액	제 68 회: 200 억원 제 69 회: 600 억원
발행일	제 68 회 2021 년 5 월 28 일 제 69 회: 2021 년 6 월 18 일
만기일	제 68 회: 2 년 제 69 회: 2 년

녹색채권 평가¹ 결과

최종 평가

GB1

Part 1 평가

E1

Part 2 평가

M1

주) 제 68 회 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음.

평가 의견

한국신용평가(주)는 당사의 ESG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주)한양이 발행한 200억원의 제68회 사모사채(녹색채권) 및 600억원의 제69회 공모사채(녹색채권)에 대하여 사후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Part 1(프로젝트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등급을 'E1',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등급을 'M1', 최종 평가등급은 'GB1'으로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다. 또한, (주)한양의 녹색채권 Framework(이하 '관리체계') 및 관리체계에 따른 운영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가 적격 기준에 부합하며 발행금액 전액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
- SPC에 대한 출자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투입되어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 효과 존재
- 선정기준, 내부 승인 절차 등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절차 완비
- ESG 채권 등록대상 작성, 미사용자금 관리 절차 마련 등 조달자금 관리체계가 ICMA 기준에 부합
- 자금사용 완료 시점까지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주기적 보고 및 공시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주요 이슈가 없으며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

¹ 녹색채권 평가: 회사가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당사의 분류체계(Taxonomy)에 부합하는 적격 프로젝트에 충당하는 정도와 조달자금과 관련된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의 최종 등급은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인증평가의 대상이 채권(Bond)인 경우에는 상위부터 GB1, GB2, GB3, GB4, GB5의 부호로 표시된다.

(주)한양(이하 '동사')이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총 800억원이다. 동사는 조달금액 전액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광양그린에너지(주)(이하 'SPC', 동사 지분율 80.0%)의 자기자본(Equity)으로 투입하였다. SPC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위하여 동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SPC는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미사용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프로젝트가 당사 분류체계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격 프로젝트 범주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동사의 프로젝트가 당사 분류체계상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사가 발표한 사후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연간예상발전량은 1,541,760 MWh이며, 연간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은 683,395 tCO₂e_q으로 추정됨에 따라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배분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사업은 온실가스 절감 등 기후변화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동사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를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인 투자금융팀 주도 하에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격 프로젝트 기준을 관리하고 승인내역을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당사는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사는 동사가 조달자금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등록대장(Register)을 작성하고 있고, SPC 내 ESG채권 발행대금 사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수시로 거래내역을 공유 받음으로써 ESG채권별 투입자금 및 미사용자금의 추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미사용자금은 동사의 자금집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현금성자산 또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금융자산을 활용하여 관리되고 있다. 당사는 동사 제시 자료상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내역이 ESG채권 발행대금 관리계좌, 사내 자금관리 시스템 및 별도의 등록대장을 통해 추적가능하며,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2021년에 모두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가일 현재 조달자금은 전액 배분되어 미사용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동사가 녹색채권 조달자금 관리를 위해 등록대장을 작성하며, 미사용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자금관리'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로젝트 영향에 대한 측정 및 보고와 관련하여, 당사는 동사가 녹색채권 조달금액을 배분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후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보고 및 공시를 실행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사의 사후보고 및 공시(Reporting) 관련 관리체계(Framework)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사는 현재까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에너지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사의 ESG 관련 활동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동사가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자금 전액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 등 동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본 녹색채권의 경우와 같이, 조달자금의 추적 및 관리를 위하여 SPC 내 ESG채권 발행대금 사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수시로 거래내역을 공유 받는 등 자금관리 측면에서 시스템과 내부체제가 구비되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본 평가에는 현행 **KIS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평가방법론은 'www.kisrating.com / 리서치 / Special Repor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행기업 개요

(주)한양(이하 '회사')은 1973년 설립된 국내 중견 건설업체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8위를 기록하였다. 회사는 2004년 보성건설(주)와 새창조건설(주) 컨소시엄에 인수된 이후, 2007년 보성건설(주) 건설부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2010년 상가임대사업부문을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로 인적분할하였다. 2022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인 (주)보성이 회사 지분 86.1%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토목, 플랜트 및 건축으로 구성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오랜 업력과 LNG 저장시설, 항만, 하수 처리시설 공사 등에서 축적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주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관급 토목공사 수주 위주로 주택을 포함한 건축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최근 그룹의 태양광, LNG허브 터미널,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신규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택에 의존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있다.

평가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증 대상 ESG 금융상품 개요

구분	내용	
금융상품명	(주)한양 제 68 회 사모사채(녹색채권)	(주)한양 제 69 회 공모사채(녹색채권)
발행금액	200 억원	600 억원
발행일	2021 년 5 월 28 일	2021 년 6 월 18 일
만기일	2023 년 5 월 28 일	2023 년 6 월 16 일
대표주관사	우리종합금융(주)	NH 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주) 제 68 회 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음.

발행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회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ISO 140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득하는 등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설계를 비롯하여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주택건설, 풍력발전, LNG 가스사업 등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회사는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설계, 시공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최신 안전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여 안전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rt 1 평가



당사는 동사의 '조달금액 투입내역 및 프로젝트 적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프로젝트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본 채권 발행자금 중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비중이 90%를 초과하여 Part 1(프로젝트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등급은 'E1(탁월)'으로 유지하였다.

프로젝트 적격성 검토

당사는 본 Part 에서 당사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따라 동사의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환경(Green)에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프로젝트(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되는지 확인한다. 조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전문 부서 또는 외부의 제 3 의 기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회피책이나 완화책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1. 프로젝트 내용 및 조달자금 투입 내역

본 녹색채권 관련 사후보고서에 따르면, 동사가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800억원이다. 당사는 조달 금액 전액을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광양그린에너지(이하 'SPC', 동사 지분율 80.0%)의 자기자본(Equity)으로 투입하였다. SPC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위하여 동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으로, SPC는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미 사용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SG 채권 조달자금 투입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카테고리	프로젝트 주요 내용	비고
환경(Green)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신규 투자 / SPC 에 대한 출자

자료: 동사 제시

당사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의 대상 프로젝트로, 동사가 EPC사업자로 참여한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방식, 220MW(110MW*2기) 용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신축공사를 선정하였다. 동 발전소는 광양 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내 122,300㎡(37,000평) 부지에 건설되며, 발전기 설비형식은 CFBC 보일러(순환유동층보일러) 타입으로 우드펠릿(주연료), 우드칩(보조 연료) 등 순수 목질계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상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는 2021~2025년에 걸쳐 총 6,80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당사는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금액 전액을 2021년 내 SPC의 자기자본으로 투입하였다.

ESG 채권 조달자금 투입 내역

구분	프로젝트 카테고리	프로젝트 주요 내용	총 투입금액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 투입금액
환경(Green)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6,804 억원	800 억원

자료: 동사 제시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사업법인	광양그린에너지㈜
위치	전라남도 광양 황금산업단지 내 (광양시 황금동 산 191번지)
주주	(주)한양 80%, 한국수력원자력(주) 20%
사용 연료	순수목질계 바이오매스(전소)
설비 구성	CFBC 보일러 2기, 110MW 스팀 터빈 2기 등
총사업비	6,804억원
사업기간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
사업일정	2021~2025년

사업 조감도




자료: 동사 제시

2. 분류체계 및 SDGs Mapping

당사는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프로젝트가 당사 분류체계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격 프로젝트 범주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동사의 프로젝트가 당사 분류체계상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UN 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ICMA 의 SDGs Mapping 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동사의 프로젝트가 각 SDGs 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프로젝트별 분류체계 범주 및 SDGs Mapping 검토 결과

구분	프로젝트 주요 내용	KIS Taxonomy	정부 가이드라인	UN SDGs
환경 (Green)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동사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 환경(Green) 프로젝트는 ICMA 의 SDGs Mapping 에 비추어 보면,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 부합한다.

[Target 7.2] 2030 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

[Target 7.a]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3. 프로젝트의 환경적 편익에 대해서

당사 분류체계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격 프로젝트 범주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그 환경적 편익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동사 계획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될 경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바이오에너지는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하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화학, 생물, 연소공학 등의 기술을 말한다.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는 유지작물, 전분작물, 섬유소 식물체 등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축산폐기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들도 자원으로 이용하여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알콜, 열, 전기, 수송연료 등을 생산한다.

바이오에너지는 석유 연료에 비해 기후변화물질을 현저하게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 같이 사용 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성을 가지고 있어 원료 고갈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다각화 목적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SPC 에 대한 출자를 통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동 발전소는 우드펠릿(주연료), 우드칩(보조연료) 등 순수 목질계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방식, 220MW(110MW*2 기) 용량).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경우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연료를 태울 때 다시 대기로 환원되므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지 않지만, 화석연료는 땅 속에 묻혀 있던 탄소를 꺼내어 연료로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대기 중 탄소가 순증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 및 목재 폐기물이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권고하고 있다.

동사가 발표한 사후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연간 예상발전량은 1,541,760 MWh 이며, 연간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은 683,395 tCO_{2eq} 으로 추정됨에 따라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배분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사업은 온실가스 절감 등 기후변화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프로젝트명	설비용량 (MW)	연간예상 발전량(MWh)	공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tCO _{2eq})	연간 온실가스 예상감축량(tCO _{2eq})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220	1,541,760	221.4	683,395

주1) 연간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국가고유배출계수(발전단) 0.4434 tCO_{2eq}/MWh 사용하여 계산한 후, 공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하여 추정

주2) 공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영향평가 수치 반영

주3) 연간 예상발전량: 설비용량의 최대 발전 가능시간에서 이용률 80% 적용

자료: 동사 제시

한편,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 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연탄의 5% 수준이고, 특히 먼지와 황산화물의 경우 2% 이내로 유연탄에 비해 환경 유해성이 매우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t 2 평가



본 Part 에서는 발행기업의 경영진이 ESG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목표 설정에 지속가능성 과제를 포함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당사는 이하에 상술하는 평가 근거를 바탕으로,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과 관련한 동사의 관리, 운영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사후보고 및 공시 투명성도 높으며, 조달자금의 적격 프로젝트 투입 계획에 따라 실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등급은 'M1(탁월)'으로 유지하였다. 즉, 당사는 동사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 등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발행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 관리체계 및 실제 운영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 의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별 평가 결과

Sector 1.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Sector 2. 자금관리



Sector 3. 사후보고 및 공시(Reporting)



Sector 4. 발행기업의 ESG 관련 활동



Sector 1.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본 Sector에서는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 관련된 동사의 내부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구비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선정기준

동사는 프로젝트 선정 시 동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ICMA의 Green Bond Principles 등 원칙에서 정한 프로젝트 분류 등예의 적합성을 감안하고 있다. ESG 관련 업무의 경우, 동사는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인 투자금융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프로젝트 선정기준 결정 시 내부 전문부서 또는 외부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세스

동사는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 프로세스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개별 사업부문에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선정
- 2)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투자금융팀)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검증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3)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투자금융팀)에서 정기적으로 ESG 관련 성과를 사후관리 및 공유

동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설명을 통해, 당사는 동사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를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 주관부서인 투자금융팀 주도 하에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격 프로젝트 기준을 관리하고 승인 내역을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당사는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2. 자금관리



본 Sector에서는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계획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투입현황을 용이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부체제 및 미사용 조달자금의 관리, 운용방법이 구비되어 있는지, 구비된 절차에 따라 자금관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동사의 자금관리는 투자금융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금융팀은 프로젝트 담당 개별 사업부문 및 SPC와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자금투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징구하고, 사내 자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투입 상황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사는 조달자금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등록대장(Register)을 작성하고 있고, 본 녹색채권의 경우, SPC 내 ESG채권 발행대금 사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수시로 거래내역을 공유받음으로써 ESG채권별 투입자금 및 미사용자금의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등록대장에는 ESG채권 관련 세부내역, 조달자금의 자금투입 계획, 누적 투입자금 현황 등이 포함되며, 미사용자금은 동사의 자금집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현금성자산 또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금융자산을 활용하여 관리되고 있다.

당사는 동사 제시 자료상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자금배분내역이 ESG채권 발행대금 관리계좌, 사내 자금관리 시스템 및 별도의 등록대장을 통해 추적가능하며,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2021년에 모두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가일 현재 조달자금은 전액 배분되어 미사용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동사가 녹색채권 조달자금 관리를 위해 등록대장을 작성하며, 미사용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자금관리'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3. 사후보고 및 공시(Reporting)



본 Sector에서는 동사의 사후보고 및 공시체계가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후보고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당사는 동사가 ESG채권 조달자금 전부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까지 동사 홈페이지에 연간보고서를 공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계획된 바에 따라 사후보고 및 공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발행이 완료된 ESG채권 개요, 조달자금의 투입 현황(Allocation Reporting), 자금투입에 따른 영향(Impact Reporting)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당사는 ESG 관련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별도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지는 않다.

당사는 Allocation Reporting을 통해 투자자에게 ESG채권별 조달자금의 사용이 동사의 ESG채권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ESG채권 조달자금의 투입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사후보고와 관련하여 재무금융실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사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가 녹색채권 조달금액을 배분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후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보고 및 공시를 실행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사의 사후보고 및 공시(Reporting) 관련 관리체계(Framework)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4. 발행기업의 ESG 관련 활동



본 Sector에서는 발행기업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과거 발행기업과 관련된 ESG 이슈를 파악하고, 동일 이슈의 발생빈도,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발행기업의 대응을 통해 발행기업의 ESG이슈가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다.

본 Sector 평가를 위해 동사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나 관련 활동의 발생빈도,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과 이슈 발생 시 동사의 대응방법을 검토하였다.

동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ISO 140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득하는 등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설계를 비롯하여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주택건설, 풍력발전, LNG가스사업 등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사는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설계, 시공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보건방향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최신 안전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여 안전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현재까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사의 ESG 관련 활동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주)한양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

동사는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및 전 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이루고자 2004년부터 '한양사랑나눔봉사단'을 창립하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4년 12월 설립된 한양사랑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고 신뢰와 정이 넘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왔으며, 전 임직원의 기부액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업이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임직원 봉사활동으로는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복지시설 행사를 지원하고,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남동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정기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며 2006년부터 경기 양평 삼가리 마을과 일사일촌 운동을 통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동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종 평가

당사는 당사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따라 동사의 녹색채권에 대한 인증 평가 결과, Part 1(프로젝트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등급을 'E1',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등급을 'M1', 최종 인증평가 등급은 'GB1'으로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다. 또한, 동사의 녹색채권 Framework(관리체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리체계에 따라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IS 녹색채권 인증평가 등급 매트릭스

구분		Part 2				
		M1	M2	M3	M4	M5
Part 1	E1	GB 1	GB 2	GB 3	GB 4	GB 5
	E2	GB 2	GB 2	GB 3	GB 4	GB 5
	E3	GB 3	GB 3	GB 3	GB 4	GB 5
	E4	GB 4	GB 4	GB 4	GB 5	등급 외
	E5	GB 5	GB 5	GB 5	등급 외	등급 외

결론적으로, 당사는 동사가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자금 전액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 등 동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본 녹색채권의 경우와 같이, 조달자금의 추적 및 관리를 위하여 SPC 내 ESG채권 발행대금 사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수시로 거래내역을 공유 받는 등 자금관리 측면에서 시스템과 내부체제가 구비되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별첨 1] 본건 ESG 채권 평가에 관한 중요한 설명**1. 평가의 전제, 의의, 한계**

당사가 부여한 ESG 채권 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인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당사가 정의하는 그린 프로젝트 및 소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정도와 해당 ESG 채권의 자금용도 등과 관련하여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에 관한 당사의 현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의견 표명이며, 해당 ESG 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의 투입과 자금용도 등과 관련된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를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ESG 채권 평가는 채권의 발행 계획 시점 또는 발행 시점에서의 자금의 총당 등 계획 또는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실제 자금투입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ESG 채권 평가는 해당 채권이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ESG 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사는 발행기업 또는 발행기업이 의뢰하는 제3자에 의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하나, 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

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신용평가 업무와의 관계

당사의 ESG 채권 인증 평가는 당사의 부수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신용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4. 신용평가 등급과의 관계

본건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과는 전혀 다르며, 또한 별도의 정해진 방법론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 평가의 결과가 신용평가와 관련성이 있거나 동등한 결과를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당사 ESG 채권 평가상의 제 3 자성

본 평가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행기업과 당사 사이에 이익 상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관계, 인적관계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별첨 2] KIS의 ESG 금융 평가등급 체계

당사는 ESG 채권 발행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관련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당사의 평가방법론에 준거하여 분석한 후, 개별 ESG 채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등급(ESG1~ESG5) 형태로 부여한다. ESG 채권 발행 전 평가에서는 자금용도, 조달자금에 대한 운영, 관리, 공시 등 발행기업의 채권 발행 계획과 ESG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ESG 채권 발행 후 평가에서는 실제 이행한 실적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본 평가의 결과인 등급은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 적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이며, 동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인 영향이나 개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등급 및 정의

등급	정의
ESG1	ESG 채권의 거의 모든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탁월(Excellent)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2	ESG 채권의 대부분의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우수(Very Good)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3	ESG 채권의 50% 이상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우수(Good)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4	ESG 채권의 50% 미만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적정(Fair)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5	ESG 채권의 매우 적은 금액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취약(Poor)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주) 등급 부호는 평가 대상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게 표시한다. 즉, 채권은 GB1~GB5(환경), SB1~SB5(사회), STB1~STB5(지속가능), 대출은 GL1~GL5(환경), SL1~SL5(사회), STL1~STL5(지속가능), 펀드는 GF1~GF5(환경), SF1~SF5(사회), STF1~STF5(지속가능)로 표시한다.

최종 등급 결정 Matrix

		2 단계				
		M1	M2	M3	M4	M5
1 단계	E1	ESG 1	ESG 2(1)	ESG 3(2)	ESG 4(3)	ESG 5(4)
	E2	ESG 2(1)	ESG 2	ESG 3	ESG 4	ESG 5
	E3	ESG 3(2)	ESG 3	ESG 3(4)	ESG 4(5)	ESG 5
	E4	ESG 4(3)	ESG 4	ESG 4(5)	ESG 5	등급 외
	E5	ESG 5(4)	ESG 5	ESG 5	등급 외	등급 외

유 의 사 항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ESG금융 등급은 해당 금융의 ESG 인증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의 장래 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주식회사나 Vigeo Eiris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당사가 발행기업 및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단, 해당 정보에는 인위적, 기계적, 또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이든 상관없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 결과,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시장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서, 일체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사는 해당 정보의 오류, 위조, 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의 모든 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손실,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원인이든, 그리고 해당 손해가 예견 가능한 예견 불가능한 상관없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ESG채권 평가는 평가 대상인 ESG채권과 관련있는 각종 리스크(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시장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ESG채권 평가는 당사의 현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의견 표명이며, 사실의 표명이 아니며, 리스크의 판단이나 개별 채권, 기업어음(CP) 등의 구입, 매각, 보유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어떤 추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는 정보의 변경, 정보의 부족, 기타 사유에 의해 변경, 중단, 또한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본 문서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의 데이터를 포함해, 본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이든 상관없이 무단 복제, 번역, 개정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가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평가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평가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평가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평가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평가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평가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평가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재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